

# 자연이 들려주는 해학과 익살과 슬픔의 이야기들



● 이 글을 쓴 원재길은 연세대 사학과 및 같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나는 눈물을 묻고 있는자들》을 냈고, 전작 장편소설 《겉옷과 속옷》을 발표하여 소설가가 되었다. 장편 《모닥불을 밝히려》 《적들의 사랑 이야기》, 소설집 《달밤에 물레 만나다》, 시집 《나는 걷는다 물 먹은 대지 위를》 등을 냈다.

지금 창 밖으로 폴짝폴짝 뛰어 마당을 건너가는 개구리 두 마리가 보인다. 그 너머 개울가 오솔길로는 부르릉 소리를 내며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우체부가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다. 눈에 가득한 개구리들이 짹 짹 찾아서 우는 소리가 귓전에 가득하고, 점심을 잘 먹어 한껏 기분이 좋아진 우리집 진돗개 ‘알로’는 따뜻한 봄볕 아래 다리를 길게 뻗고 낮잠을 즐기는 중이다.

백여 년 전에 쥘 르나르가 《자연의 이야기들》을 쓰던 프랑스 시골마을을 슈트리라는 곳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쥘 르나르인 양, 또는 쥘 르나르가 나 자신인 양, 줄곧 이 책을 뒤적이고 또 뒤적이며 연신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모두 여든네 편의 이야기를 담은 《자연의 이야기들》은 시골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관찰 기록이면서, 바다 건너 미국의 농부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시편들을 떠올리게 하는 걸작 시집이다.

닭과 오리와 칠면조, 거위와 고양이와 암소와 황소와 망아지와 당나귀, 염소와 도마뱀과 족제비와 고슴도치와 뱀, 지렁이와 두꺼비와 개미와 벼룩과 나비와 말벌, 앵무새와 종달새와 물총새와 까마귀와 자고새와 도요새... 이런 동물들에 대한 관찰기라면 파브르 곤충기의 객관적인 생태보고서 수준의 그저 그런 이야기 모음집이겠거니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한 시절 청소년들의 필독서이자 애독서였던 《홍당무》의 작가답게, 쥘 르나르는 한없이 즐겁고 유쾌한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동물을 묘사하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 동물은 행동이나 습성이 꼭 그렇다니까!” 하고 감탄하게 만든다.

가령 쥘 르나르의 글에 나오는 암탉은 관절염 환자처럼 뻣뻣다리를 높이 든 뒤에 발가락을 벌려 살며시 발을 내려놓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맨발로 자갈밭을 걷는 것 같다. 고개를 쳐들고 한껏 잘난 척하며 돌아다니는 칠면조는 늘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탓에 한번도 자기 발을 본 적이 없으며, 심통 사나운 빨닭이 먼지 구덩이 속을 굴러다닐 때면 땅이 불룩불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비둘기는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무언가가 걸려 있는 듯이 늘 목을 앞뒤로 움직이며,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을 때마다 진흙 속을 뒤져 지렁이를 잡는 백조는 얼핏 보기에 헛되이 물에 비친 구름을 한 조각 베어 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엄청난 식욕을 뽐내며 아무데나 코를 들이밀고 돌아다니는 돼지는 마치 네 다리로 걷는 동시에 코로 걷는 느낌을 주며, 벽에 붙은 신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뜯어서 먹어


치우는 염소는 쥘 르나르가 보기에 대단한 독서광이며, 길게 누워 기지개를 켜는 지렁이는 잘 뽑은 국수가닥 같고, 달팽이는 오로지 자기 허를 이용해 걸을 수 있을 뿐이며, 벼룩은 용수철이 달린 담뱃가루이다. 그리고 말벌은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언젠가는 탈이 날 것처럼 여겨지며, 다람쥐는 꼬리로 작은 햇불을 들고 나뭇잎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불을 놓아서 가을 산을 붉게 타오르게 만들며, 사슴은 머리에 화분을 이고 다니는 사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허공을 날며 직선을 긋고는 썩표를 찍은 뒤에 엄청나게 큰 괄호를 그리는 제비는 백묵으로 칠판에 거침없이 글씨를 쓰고 부호를 그리며 열변을 토하는 명강사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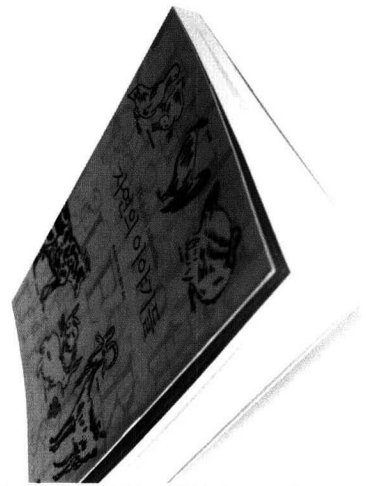
그러나 쥘 르나르의 경우에 자연, 또는 동물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은 마냥 즐겁고 기쁘고 우스꽝스러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생이 그렇듯이 다른 동물들의 삶에서도 비극은 벌어지며, 이 비극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앞으로 경건히 두 손을 모을 때 이러한 애정은 마침내 균형을 이루어 완성된다. 이를테면 강아지 테데슈가 밀렵꾼의 개한테 물려 신장을 다쳐 아무데서나 오줌을 누자 어른들이 결국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는 장면이 그러하다. 강아지가 죽어가는 순간에, 강아지의 주인인 꼬마 아가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운다. 그러더니 엄마에게 “나는 이다음에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살 거야” 하고 말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훌쩍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이 주인의 미래에까지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엿보는 순간 비극은 절정으로 치닫게 마련이다.

암소 브뤼테트가 송아지를 낳은 뒤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광경 또한 그러하며, 과식하여 죽음을 맞는 집토끼 르그리,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떼어내고자 물고기 아가미를 찢다가 손에 끈적끈적한 피가 묻자 “돈을 주고 다른 물고기를 살 수도 있었는데 사냥을 했으니 난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고 자책하는 장면, 쥘 르나르 자신이 사냥을 나섰다가 총으로 자고새를 맞혀 피투성이로 만든 뒤에 “아! 나야말로 엉덩이에 총알 세례를 받아도 싸다!” 하고 탄식하는 장면들도 다른 동물들의 죽음을 대하는 이 시인의 마음 자세를 보여준다.

《자연의 이야기들》은 초판이 나온 지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재판이 나올 때마다 뛰어난 화가들이 삽화를 맡았다. 파리 물랭루즈의 천재화가 툴루즈 로트렉이 삽화를 그렸다는 2판을 볼 수 없어 아쉽긴 하나, 이번 번역본에 실린 피에르 보나르의 삽화는 수

묵화 풍의 단순하고 소박한 선을 통해서 글 내용과 멋진 짝을 이루으로써 우리의 눈을 한껏 즐겁게 만들어준다.

아, 이제 알겠다. 자연과 나의 일체, 곧 물아일체! 이것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의 자연관이며 우주관이다. 이 책에서 쥘 르나르는 동양의 우주관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나르 또한 같은 시각으로 르나르의 동물들을 바라본다. 색깔과 크기와 행동양식과 습성의 따지지 않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차별 없는 애정은 바로 이러한 우주관에서 생겨난다. 



《자연의 이야기들》 쥘 르나르 지음 | 박명옥 옮김 | 문학동네 | 310쪽 | 값 9,000원